

북, 핵실험장 폐기·미사일 발사 중단

한반도 평화의 봄 경제·사회분야 확산 ... 한국경제 재도약 기대
청와대 “정상회담 모든 순간 모바일 통해 전 세계 실시간 생중계”

남북정상회담 D-4

‘2018 남북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이 지난 20일 핵 실험장을 폐기하고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중단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한반도의 봄’이 성큼 다가온 분위기다.

〈관련기사 2면〉

특히, 북한이 지난 2013년 채택한 핵·경제 건설 병진 대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노선을 채택, 한반도의 봄이 국방·안보분야를 넘어 경제·사회 분야로 확산, 한국 경제의 재도약 등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 오지 않는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일 김 위원장 주재 하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이제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비핵화 사전조치’를 북한이 수용한 셈이어서 5월 또는 6월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비핵화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밀그룹이 그려지면 이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라는 최종 그림이 완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환영 의사를 표했다.

청와대도 지난 21일 운영한 국민소통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조만간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발표가 단순히 핵·ICBM 실험 중단에 맞춰지면서 ‘핵무기 포기’라는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남북 정상회담 최종 점검회의를 소집,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남북은 23일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경호·의전·보도 분야 3차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한편,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 등 모든 순간을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운영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내 손안의 정상회담이 구현될 것”이라며 “전 세계 누구나 모바일을 통해서 회담 관련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광주시장 후보 이용섭 선출

52.94% 득표 본선 직행
“시민과 당원 지지에 감사”

이용섭(사진) 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3면〉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8~20일 까지 사흘간 진행됐던 국민여론조사(50%)와 권리당원 ARS투표(50%)에서 이용섭 후보가 52.94%(감산 10% 적용) 득표율을 얻어 강기정 후보(32.22%)와 양향자 후보(14.85%)를 누르고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과반(50%)을 넘으면서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

이로써 이 후보는 지난 2010년, 2014년에 이어 3번째 도전 끝에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돼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민주당 광주시장으로 선정된 이 후보는 “시민과 당원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며 “민주당 소속 모든 후보가 원팀이 되어 광주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단결하자”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이용섭 후보와 정의당 나경재 후보, 민중당 윤민호 후보가 경쟁하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아직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이 후보는 탈당 전력에 따른 10% 감산으로 결선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과반을 넘기며 본선으로 직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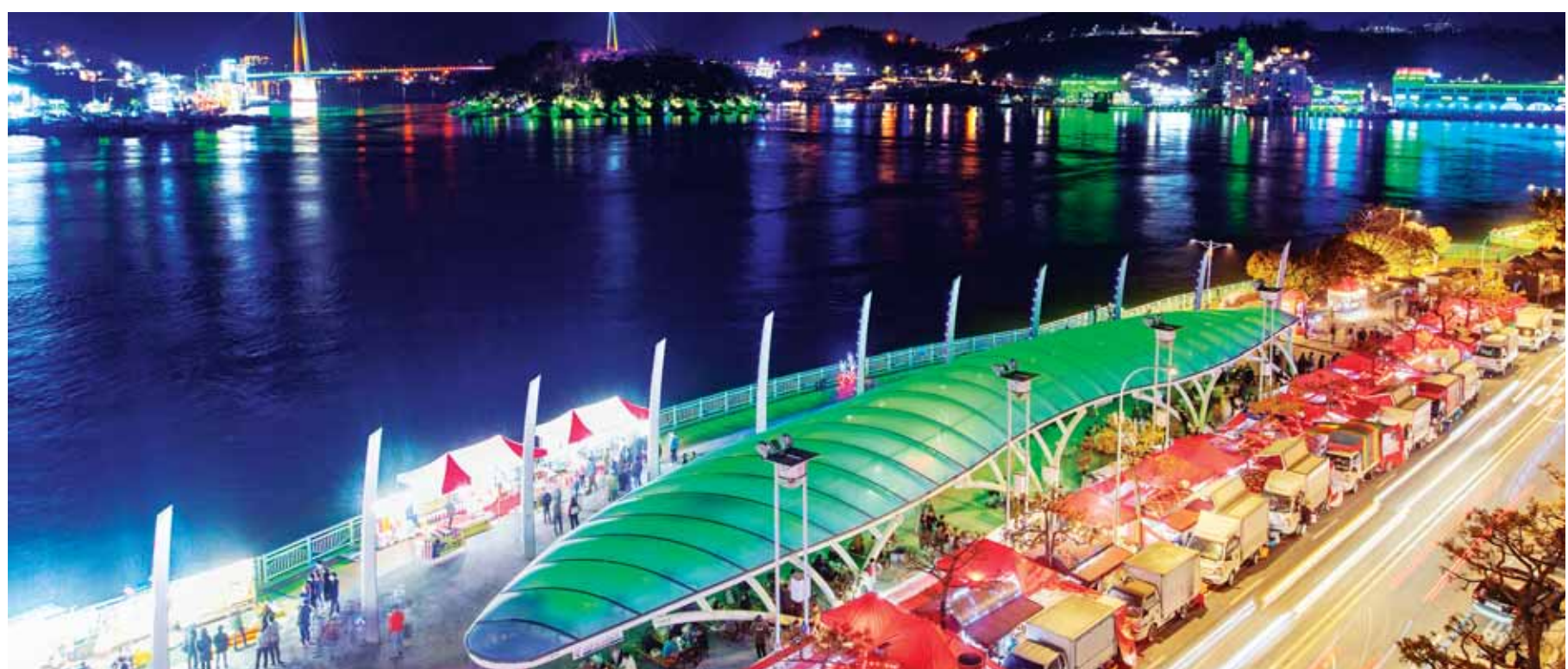
특히 논란 끝에 대통령 명칭 사용이 허용되면서 3명의 경선 후보 중 유일하게 노무현·문재인 두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대표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강기정 후보는 민행배 전 광산구청장, 최영호 전 남구청장과의 후보단일화에 성공한 데 이어 윤장현 현 시장의 참모와 지지층을 흡수했지만 30%대 득표율에 그치면서 이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지 못했다

는 평가다. 지역정가에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일부 강 후보 지지층의 이탈과 ‘이용섭 대세론’이 강하게 불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양향자 후보는 지역 내 지지층이 탄탄하지 못하고 권리당원도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경선 막판까지 세를 불리며 선전했지만, 10%대 초반의 득표율에 그치면서 이 후보의 과반 저지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다만, 여성 후보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두자리 수 지지율을 확보하며 자신의 정치력과 지역 내 입지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 밤바다 내년에 열릴 제 18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여수시가 확정됐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시민 역량과 빼어난 풍광, 국제회의를 열기에 적합한 회의 장소 등을 갖춘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밤 여수시 중하동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 거리가 밤바다의 정취를 느끼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9 세계한상대회 여수서 열린다

10월 15~17일, 글로벌 경제네트워크 구축

2019년 열리는 제18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전남 여수가 확정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르네상스 달라스 호텔

에서 열린 재외동포재단 제32차 운영위원회에서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가 내년 한상대회 개최지로 결정됐다. 세계한상대회는 2002년부터 한민족 경

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이어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10월 15~17일 열린다. 1000여명의 해외 한인 경제인과 2000여 국내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행사다.

재외동포재단 운영위원회 참석 대의원들은 단독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전남도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뒤 만장일치로 차기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를 결정했다.

앞서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과 주철현 여수시장은 운영위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여수는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서 성공적 대회 개최를 확신한다”며 “내년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봄비 ... 때 이른 더위 쫓고 미세먼지 씻어주고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왔던 광주·전남지역에 24일까지 비가 내리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3일과 24일 광주·전남은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3일 낮 최고 기온은 14도~18도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23일 광주·전남지역에 30~80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으며, 남해안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인근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

봤다. 비는 24일까지 오전까지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2일부터 내린 비와 대기 확산 등으로 23일 광주·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중’ 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찾아온 무더위가 비로 인해 누그러지면서 이번 주 낮 최고기온은 평년(19~23도)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일보
이사비용 들쭉날쭉 불만 폭주 ▶6면
분노의 호랑이, 곰 마운드 난타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업에 추가 혜택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자금 지원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에게 2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자금을 융자에 드립니다.
 - 일반 경영안정자금 융자(2.94%, 변동) 보다 낮은 2.5%(고정)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특별지원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중소기업을 위해 5백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을 융자에 드립니다.
 - 전용자금 지원조건은 연 3.0% 고정금리, 기업당 연 2억원 한도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 1588-7365)

- 신용보증재단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주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특례보증해 드립니다.
- 보증비율을 확대(85→100%)하고, 보증료율을 0.8%로 우대합니다.
 - * 최근 5년간 평균 보증료율: 1.04% / (1년)2.95%, (5년)3.3% 금리로 대출

기술보증기금의 금융지원 협약 보증 (☎ 1544-1120)

-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은행과 협약을 통해 신기술사업자 중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주에게 당해연도 보증료 전액을 면제해드립니다.
 - 다음해부터는 고정 보증료율 0.7%(평균 보증료율 1.4%)를 적용하여 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세요.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 금액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지급 방식 직접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신청 방법 온라인(4대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방문·우편·팩스(4대 사회보험공단지사, 읍·면·동사무소)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광주광역시 광주시청 |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부 | 근로복지공단